

조리 실습 시설의 만족 수준과 사전 교육 경험에 따른
조리전공 대학생의 대학 생활 적응도
- 충청도에 위치한 대학을 중심으로 -

나 태 균[¶]·이 동 근
경기대학교 대학원 외식조리관리학과[¶]

Culinary Art Students' Adaptation to College Life according to
Their Satisfaction with a Culinary Laboratory and
Their Educational Experience
- Focus on the Universities in Chungcheong Province -

Tae-Kyun Na[¶], Dong-Keun Lee

Dept. of Foodservice & Culinary Arts Management, Graduate School of Kyonggi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students' satisfaction levels with culinary practice facilities and adaptation to college life according to their educational experience before joining university. Two hundred culinary arts majors from three universities were sampled and 191 questionnaire copies analyzed.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adaptation level of the group with educational experience was partly higher than that of the group without educational experience. Second, the adaptation level of the group with a relatively high satisfaction level was higher than that of the rest. Third, when the satisfaction level with the facilities for culinary practice was high, the group without educational experience showed a higher level of attachment to university and better physical adaptation than the group with educational experience. Whereas the latter showed a higher level of emotional and social adaptation than the former. When the satisfaction level with the facilities for culinary practice was low, the group without educational experience showed a higher level of attachment to university than the group with educational experience. On the other hand, the latter showed a higher level of social, emotional and physical adaptation than former. Therefore, in order to create a future-oriented harmonious teaching and learning experience, a new educational cooking environment that is fully functional and serves to heighten the satisfaction level of students should be designed.

Key words: culinary arts, facilities for culinary practice, satisfaction level, educational experience, adaptation to college life.

I. 서 론

대학 생활의 시작은 교육 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독립적이며 능동적인 생활 방식으로의 전환, 주도

[¶] : 나태균, 010-6242-5712, foodfia@hanmail.net,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2가 71 경기대학교 대학원 외식조리관리학과

적인 학업 생활의 요구, 새로운 대인관계와 대학생들에게 지각되는 사회적 기대 등으로 인해 대학생들에게 많은 스트레스를 주고 있다(Kim SK 2003; Betterncourt et al 1999). 대학생들의 학교 환경에 대한 효과적인 적응은 대학 생활에서 경험하는 복합적인 스트레스나 갈등을 긍정적이고 합리적으로 해결하여, 사회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기 위한 중요한 준비 과정이 된다(Lee SJ & Yu JH 2008).

이와 같이 대학 생활이 인생 전반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대학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높지 않음이 보고되면서(서강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2002; Kwon DB 등 2002), 대학생들이 적응하는데 있어서 겪는 어려움에 대한 연구(Kim SK 2003; Kwon DB 등 2007; Song JW 등 2007)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대학 교육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을 살펴보면, 국내 조리 교육 환경과 관련하여 조리 관련 학원의 교육 환경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Park KT와 Paek JO(2008)의 연구에서는 조리 교육 환경의 중요 요인으로써 조리 환경 요인, 교육 서비스 요인, 부가적 요인, 강사진의 태도 요인을 측정하였으며, Kim KY와 Kang KS(2006)의 연구와 Kim TH와 Kim WM(2005)의 연구에서는 조리 실습을 위한 교수-학습 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다른 학문 분야의 연구결과로써 한덕웅 등(1991)은 소속 대학 적응과 관련해서는 교수와의 인간관계, 학교의 제도 및 시설, 학업 관련 시설, 그리고 진로 및 취업 전망 등이 주요 예측 요인으로 나타났다. Jhoo EH(2001)는 전반적 대학 생활 적응도와 소속 학과 적응도는 대학의 제도 및 시설 측면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Ryan & Deci(2000)의 연구에 따르면 교육 현장에서 만족감을 느끼는 학생들은 대학생으로서의 삶뿐만 아니라, 학교 졸업 이후의 삶 속에서도 더욱 잘 적응하고 보다 높은 성취도와 내재동기를 나타낸다고 보고하며 성공적인 대학 생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이 모든 전공의 대학생들에게 마찬가지로 다양한 교육 환경 요인 중에서 특히 전체 교육 과정의 70~80%를 차지하고 있는 조리 실기 교육이 조리 교육의 중심이 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조리 실습 시설에 대한 교육의 합리성·효율성·체계적인 실기 교육 방법이 반드시 필요하며, 실습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현대화된 시설과 설비가 갖추어져야 한다(Kim TH & Kim WM 2005). 좋은 교육 계획과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어도 이를 지원할 시설과 설비가 갖추어지지 않으면 교육 효과의 극대화를 기대할 수 없다.

Kim KY와 Kim YB(2001)의 연구에서는 조리 실습실 전체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 분석하였으며, 중점 고려 사항으로써 부대시설 공간, 편의 공간, 냉난방 시설 등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하였다. Na TK와 Choo SY(2009)의 연구에서는 사전 교육 경험에 다른 조리 실습 시설 요인에 대한 중요도와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학생들은 이러한 다양한 문제들과 스트레스를 공통적으로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학생들이 대학 생활에 부적응을 경험하는 것은 아니다. 공통적인 스트레스의 경험 가운데 일부 학생들은 대학 생활에 잘 적응하는가 하면, 일부 학생들은 대학 생활에 부적응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Kim SK 2003). 이영애 등(2001)은 교육자가 다양성을 고려한다는 것은 자신의 학생들이 누구인지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들과 관련이 있는 교수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며, 이는 다양한 지역 문화, 가정적 배경, 성, 계층 등이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인식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실천적·학문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조리학 분야에서 대학 생활 적응과 관련된 체계적인 연구물은 거의 발견되지 않고 있다.

이상과 같은 맥락 하에 이 연구는 조리학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생들의 조리 실습 환경과 대학 생활 적응의 관계를 살피고자 한다. 또한 학습자

의 다양성·개별성 측면에서 전공자의 입학 전 교육 경험 여부에 따른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II. 연구 설계

1. 가설 설정

본 연구의 목적은 조리전공 대학생들의 조리 실습 시설 만족 수준 및 입학 전 교육 경험과 대학 생활 적응도와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학습자의 특성에 따른 만족의 차이를 분석한 선행 연구(Lee YH 등 2001; Kim SK 2003; Park EH 2005)와 조리 실습 시설에 관한 선행 연구(Kim KY & Kim YB 2001; Na TK & Choo SY 2009) 등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개인적 특성에 따라 조리 실습 시설 만족도 및 대학 생활 적응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 개인적 특성 중 입학 전 교육 경험과 조리 실습 시설 만족 수준에 따라 대학 생활 적응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2. 측정도구

1) 교육 경험

조리 분야의 특성화 고등학교가 많이 생겨나고 있는 현실에서 대학과의 연계교육은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으며(김성호 2007), 대학에 진학했다고 하더라도 학생들은 자신이 속한 전공학과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고, 그에 따라 상당수의 학생들이 입학 후에 전공학과에 대한 부적응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한 문제가 심각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교육 경험을 대학 입학이 전에 학원 등과 같은 학교 외부의 조리 관련 교육 기관에서의 교육 경험으로 정의하였다. 이를 위해 명목척도를 이용하여 고등학교 재학 중 학원 등의 외부 교육 기관에서의 교육 경험이 “있다”,

“없다”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2) 조리 실습 시설

조리 실습 시설에 관한 Kim KY와 Kim YB(2001)의 연구와 호텔 주방의 설비 및 환경에 관한 연구(Min KH et al 2003; Oh YS & Kim YH 2006; Lee DW et al 2008)를 토대로 본 연구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발췌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재구성하였다. 총 19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척도로 구성하였으며, 측정도구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한 Cronbach's α 를 이용한 신뢰도 검증 결과는 0.963으로 나타나 신뢰성 있는 측정도구임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만족 수준에

〈Table 1〉 The results of the cluster analysis

Variable ¹⁾	Cluster	
	1 ²⁾	2 ³⁾
1. Location of a culinary laboratory	3.76	2.08
2. Adequate space for practice	4.03	2.05
3. Efficient line of flow	3.84	1.98
4. Efficient arrangement of facilities	3.82	2.05
5. Storage space for food supplies	3.19	1.98
6. Usefulness of facilities	3.21	1.82
7. Welfare facilities	2.27	1.88
8. Modernization of facilities	3.51	2.13
9. Maintenance of facilities	3.35	1.90
10. Number of facilities	3.43	1.93
11. Adequate flooring materials	3.10	1.92
12. Lighting of a culinary laboratory	3.42	2.45
13. Ventilation system of a culinary laboratory	3.20	2.08
14. Air conditioning of a culinary laboratory	3.03	2.00
15. Soundproofing of a culinary laboratory	3.37	2.03
16. Water supply of a culinary laboratory	3.11	1.58
17. Gas facilities of a culinary laboratory	3.63	2.37
18. Color tone of a culinary laboratory	3.57	2.32
19. Safety facilities of a culinary laboratory	3.56	2.32
N	131	60

¹⁾ Cronbach's alpha=0.963.

²⁾ High level of satisfaction.

³⁾ Low level of satisfaction.

따른 군집을 분류하기 위해 가장 널리 쓰이고 있는 K-평균법을 통해 군집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 191명 중 131명이 만족 수준이 높은 집단으로, 60명이 만족 수준이 낮은 집단으로 분류되었으며, 각 집단 별 측정문항에 대한 평균은 <Table 1>과 같다.

3) 대학 생활 적응도

최근에는 대학생들의 적응을 신뢰하고 타당하게 측정할 수 있는 도구들이 제작됨에 따라 대학 생활의 적응에 관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조동화 2006).

그 가운데 대표적인 대학 생활 적응에 관한 측정도구는 Baker & Siryk(1989)가 제작한 대학 생활 적응도 검사(The student adaptation to college questionnaire: SACQ)로서, 대학 생활의 적응을 결정해 주는 성격적·환경적 요인들의 역할을 알아보고, 적응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을 확인해 낼 수 있는 진단적인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 제작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윤정(1999), 손유진(2003)의 연구를 토대로 연세대학교 학생 상담소에서 번안한 총 25문항으로 구성된 SACQ를 사용하였다. 리커트식 9점 평점척도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던 대학 생활 적응도 검사의 척도를 수정하여 5점 평점척도로 구성하였다. 대학 생활 적응의 하위변인들의 구체적인 측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 애착 정도는 대학생들이 자신이 다니고 있는 대학에 대한 전반적인 애착이나 호감의 정도로서 대학과 학생간의 유대감 정도를 측정한다. 둘째, 사회적 적응은 대학에서의 대인관계나 여러 친목 활동의 적응을 측정한다. 셋째, 정서적 적응은 대학생들이 일반적으로 겪는 심리적 스트레스 정도를 측정한다. 넷째, 신체적 적응은 대학생들이 일반적으로 겪는 신체화 장애 정도를 측정한다. 다섯째, 학업적 적응은 대학 내 학업과 관련된 시험, 수업 등의 적응을 측정한다.

각 문항에 대한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결과는

<Table 2>와 같다. 각 요인과 문항간의 상관정도인 요인 적재치(factor loading)는 모두 0.6 이상으로 집중타당성과 판별타당성이 동시에 확보되었다. 또한 측정도구의 신뢰성을 검정하기 위한 Cronbach's α 를 이용한 신뢰도 검정 결과, 5개의 모든 요인의 Cronbach's α 값이 모두 0.7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신뢰성 있는 측정도구임을 확인할 수 있다.

3. 조사 대상 및 시기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조리학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생들을 조사 대상의 모집단으로 선정하였다. 즉, 2009년 5월 1일부터 30일까지 약 한달 간 충청권에 위치한 4년제 대학교 3곳을 선정하여 총 200명을 표본으로 수집하였다. 조사의 대표성을 위해서는 가능한 여러 지역의 대학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충청권에 위치한 대학의 전공자를 대상으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표집자료에 한계가 있음을 밝혀둔다.

자료 수집 방법은 전공 교과목 담당교수의 도움을 받아 전공자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대상자에게만 질문지를 배부하여 대상자가 질문지에 직접 응답하도록 한 후 회수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200부 중 무성의하게 답변했거나 무응답이 있는 9부를 제외한 총 191부를 최종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4.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0.0을 이용하여 통계 처리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조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대해 분석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조리 실습 시설의 만족 수준 및 대학 생활 적응도 척도의 타당성 및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군집분석을 통해 조리 실습 시설 만족 수준을 군집화 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종속변수인 대학 생활 적응도의 차

<Table 2> The results of the reliability and factors analyses

Factor	Variable ¹⁾	Mean±SD	Factor loadings	Eigen value	% of variance
Degree of attachment to university ($\alpha=0.882$)	20. I am interested in things that the academic curriculum does not cover.	2.79±1.28	0.875	3.405	68.091
	15. I have recently started doubting the value of university education.	3.07±1.23	0.833		
	21. Since I find it difficult to adapt to university life, I often consider taking some time off from school.	2.90±1.36	0.817		
	1. I am satisfied with my current university life.	2.94±1.13	0.816		
Social adaptation ($\alpha=0.903$)	6. I am satisfied with this university I have chosen.	3.10±1.16	0.783	3.620	72.400
	2. I have made a lot of close friends.	3.08±1.16	0.893		
	14. I am active in participating in department gatherings and alumni and club activities.	3.09±1.10	0.892		
	11. I am adapting well to my current residence type.	3.21±1.11	0.870		
	18. I often feel lonely of late.	3.29±1.23	0.842		
Emotional adaptation ($\alpha=0.948$)	23. I maintain harmonious interpersonal relationships with others in the university.	3.32±1.15	0.750	4.147	82.936
	8. I have recently started feeling nervous.	3.25±1.34	0.934		
	22. I find university life stressful.	3.07±1.36	0.912		
	3. Recently, I often feel depressed.	3.03±1.36	0.910		
	24. Recently, I feel vexed even with trivial matters.	3.03±1.30	0.901		
Physical adaptation ($\alpha=0.941$)	17. I have recently found it difficult to have a good sleep.	2.95±1.44	0.895	4.072	81.444
	12. Recently, I have been having headaches.	3.29±1.17	0.933		
	16. Recently, I have gained or lost much weight.	3.32±1.17	0.919		
	10. My appetite has been good recently.	3.42±1.15	0.918		
	4. Recently, I don't feel so tired.	3.39±1.10	0.875		
Academic adaptation ($\alpha=0.930$)	19. Recently, I've been feeling healthy.	3.39±1.33	0.866	3.918	78.361
	25. Currently, I am interested in entering graduate school.	3.40±0.97	0.924		
	7. I am not serious about my studies.	3.23±0.95	0.888		
	9. I feel like I don't have enough ability to complete my current studies.	3.31±1.03	0.880		
	13. Recently, I don't feel much eagerness with my studies, and whenever I try to study I'm distracted and unable to focus.	3.37±1.02	0.879		
	5. I am satisfied with my academic performance in university.	3.46±1.01	0.853		

¹⁾ Questions enclosed in parentheses are inverse scoring questions.

이를 분석하기 위해 이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분석 결과

1. 인구통계학적 특성

조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한 빈도분석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성별의 경우, 남성이 116명(60.7%), 여성이 75명(39.3%)으로 나타났으며, 학년의 경우, 1학년이 70명(36.6%), 2학년이 59명(30.9%), 3학년이 54명(28.3%), 4학년이 8명(4.2%)으로 나타났다. 또한 출신 고교의 경

〈Table 3〉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respondents

	Division	Frequency	Percentage
Gender	Male	116	60.7
	Female	75	39.3
Grade	Freshman	70	36.6
	Sophomore	59	30.9
	Junior	54	28.3
	Senior	8	4.2
Type of high school	Academic	147	77.0
	Vocational	41	21.5
	Others	3	1.6
Educational experience	No	72	37.7
	Yes	119	62.3
Total		191	100.0

우, 인문계가 147명(77.0%), 실업계가 41명(21.5%), 기타가 3명(1.6%)으로 나타났으며, 대학 입학 전 교육 경험의 경우, '있다'가 119명(62.3%), '없다'가 72명(37.7%)으로 나타났다.

2. 개인적 특성에 따른 조리 실습 시설 만족 수준의 차이 분석

조리 전공자의 개인적 특성에 따른 조리 실습 시설의 만족 수준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입학 전 교육 경험에 따른 조리 실습 시설의 만족 수준의 평균 차이를 살펴보면, 입학 전 교육 경험이 없는 집단($M=3.16$, $SD=0.61$)이 교

〈Table 4〉 The analytical result of the difference in satisfaction levels with facilities for culinary practice according to individual characteristics

	Division	N	M±SD	t
Gender	Male	116	2.97±0.80	-0.027
	Female	75	2.97±0.89	
Educational experience	No	78	3.16±0.61	2.933*
	Yes	113	2.83±0.94	
Type of high school	Academic	147	2.99±0.85	0.803
	Vocational	41	2.87±0.79	

* $p<0.05$.

육 경험이 있는 집단($M=2.83$, $SD=0.94$)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만족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2.933$, $p=0.004$). 이는 교육 경험이 있는 집단이 조리 실습 시설에 대한 기대감이 교육 경험이 없는 집단 보다 높기 때문에 만족 수준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성별, 출신 고교 등에 따른 만족 수준의 평균 차이는 통계적으로 무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3. 개인적 특성에 따른 대학 생활 적응도

조사 대상자의 개인적 특성에 따른 대학 생활 적응도의 평균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학문적 적응($M=3.36$, $SD=0.88$)과 신체적 적응($M=3.36$, $SD=0.107$)의 평균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사회적 적응($M=3.20$, $SD=0.97$), 정서적 적응($M=3.07$, $SD=1.24$), 대학 애착 정도($M=2.96$, $SD=1.02$)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대학 적응도 평가를 살펴보면, 대학 애착 정도, 사회적 적응, 신체적 적응, 학문적 적응이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결과는 여성 보다 남성이 대학 적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서적 적응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평균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F=0.215$, $p>0.05$).

〈Table 5〉 The analytical result of the difference in adaptation levels to university according to individual characteristics

	Division	M ¹ ±SD	t or F
	Male	3.10±0.86	2.177*
	Female	2.77±1.17	
Degree of attachment to university (M=2.96, SD=1.02)	Academic	3.16±0.89	3.558***
	Vocational	2.55±1.16	
	Freshman	2.66 ^a ±1.04	
	Sophomore	2.78 ^{ab} ±0.85	
	Junior	3.17 ^b ±0.83	
	Senior	3.93 ^c ±1.03	11.316***

〈Table 5〉 Continued

	Division	M ¹⁾ ±SD	t or F
Social adaptation (M=3.20, SD=0.97)	Male	3.40±0.71	3.075**
	Female	2.94±1.19	
	Academic	3.41±0.77	4.083***
	Vocational	2.71±1.20	
	Freshman	2.88 ^a ±1.15	5.268***
	Sophomore	3.39 ^b ±0.80	
	Junior	3.29 ^{ab} ±0.73	
Senior	3.67 ^b ±0.88		
Emotional adaptation (M=3.07, SD=1.24)	Male	3.08±1.14	0.215
	Female	3.05±1.36	
	Academic	3.22±1.16	2.460*
	Vocational	2.74±1.37	
	Freshman	2.70 ^a ±1.26	4.243**
	Sophomore	3.13 ^{ab} ±1.09	
	Junior	3.48 ^b ±1.22	
Senior	3.25 ^{ab} ±1.23		
Physical adaptation (M=3.36, SD=1.07)	Male	3.53±0.86	2.348*
	Female	3.15±1.25	
	Academic	3.58±0.84	3.750***
	Vocational	2.86±1.33	
	Freshman	2.94 ^a ±1.20	8.072***
	Sophomore	3.42 ^b ±0.89	
	Junior	3.68 ^{bc} ±0.87	
Senior	3.95 ^c ±0.85		
Academic adaptation (M=3.36, SD=0.88)	Male	3.49±0.86	2.451*
	Female	3.18±0.88	
	Academic	3.50±0.80	3.598***
	Vocational	3.01±0.98	
	Freshman	3.18 ^a ±0.88	3.713*
	Sophomore	3.63 ^b ±0.81	
	Junior	3.21 ^a ±0.91	
Senior	3.60 ^b ±0.85		

¹⁾ Duncan post hoc test.

* $p < 0.05$, ** $p < 0.01$, *** $p < 0.001$.

출신 고교의 유형에 따른 대학 적응도 평가를 살펴보면, 대학 애착 정도, 사회적 적응, 정서적 적응, 신체적 적응, 학문적 적응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실업계 졸업자보다 인문계 졸업자가 대학 생활 적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에 따른 대학 생활 적응도 평가를 살펴보면, 대학 애착 정도, 사회적 적응, 정서적 적응, 신체적 적응, 학문적 적응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저학년보다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대학 생활 적응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4. 조리 실습 시설 만족 수준과 사전 교육 경험에 따른 대학 적응도 평가

1) 대학 애착 정도

조리 실습 시설 만족 수준과 사전 교육 경험에 따른 대학 애착 정도의 차이를 측정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또한 이에 대한 통계적 검증을 위해 실시한 이원배치 분산분석의 결과는 〈Table 7〉에 제시하였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 교육 경험에 따른 대학 애착 정도에 대한 주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18.077$, $p=0.000$). 즉, 사전 교육 경험이 없는 집단($M=3.30$, $SD=0.85$)이 사전 교육 경험이 있는 집단($M=2.71$, $SD=1.06$)보다 대학 애착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리 실습 시설의 만족 수준에 따른 대학 애착 정도의 주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29.703$, $p=0.000$). 즉, 조리 실습 시설 만족 수준이 높은 집단($M=3.28$, $SD=0.90$)이 만족 수준이 낮은 집단($M=2.27$, $SD=0.91$)보다 대학 애착 정도의 평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조리 실습 시설 만족 수준과 교육 경험 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본 결과 〈Table 7〉과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8.474$, $p=0.004$). 즉, 조리 실습 시설 만족 수준은 사전 교육 경험 유무에 따라 대학 애착 정도에 평균의 차이를 보이며, 조리 실습 시설 만족 수준이 높은 그룹의 경우에는 사전 교육 경험이 없는 집단($M=3.38$, $SD=0.91$)이 사전 교육 경험이 있는 집단($M=3.19$, $SD=0.88$)에 비해 대학 애착 정도가

<Table 6> The difference in attachment to university according to educational experience and satisfaction levels

Cluster	Educational experience	M±SD	N
High satisfaction	No	3.38±0.91	61
	Yes	3.19±0.88	70
	Total	3.28±0.90	131
Low satisfaction	No	3.01±0.50	17
	Yes	1.97±0.87	43
	Total	2.27±0.91	60
Total	No	3.30±0.85	78
	Yes	2.72±1.06	113
	Total	2.96±1.02	191

<Table 7> The results of two-way ANOVA

Source	SS	df	MS	F
Satisfaction(A)	22.201	1	22.201	29.703**
Experience(B)	13.511	1	13.511	18.077**
A×B	6.333	1	6.333	8.474*
Error	139.766	187	0.747	
Sum	1,868.640	191		

$R^2=0.287$, * $p<0.05$, ** $p<0.001$.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리 실습 시설 만족 수준이 낮은 그룹의 경우에는 사전 교육 경험이 없는 집단($M=3.01$, $SD=0.50$)이 사전 교육 경험이 있는 집단($M=1.97$, $SD=0.87$)보다 대학 애착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전 교육 경험이 있고 만족 수준이 낮은 조리 전공 대학생들이 대학에 대한 전반적인 애착이나 호감의 정도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전공자의 만족도 향상 방안 및 조리 전공 대학생의 다양성과 개별성을 존중하고 그것을 기본으로 효과적인 학습이 이루어짐으로써 조리 전공 대학생이 대학에 대한 전반적인 애착이나 호감의 정도를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2) 사회적 적응

조리 실습 시설 만족 수준과 사전 교육 경험에 따른 사회적 적응의 차이를 측정된 결과는 <Table 8>과 같다. 또한 이에 대한 통계적 검증을 위해 실시한 이원배치 분산분석의 결과는 <Table 9>에 제시하였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 사전 교육 경험에 따른 사회적 적응에 대한 주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F=1.008$, $p=0.317$). 또한 조리 실습 시설의 만족 수준에 따른 사회적 적응의 주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9.738$, $p=0.002$). 즉, 조리 실습 시설 만족 수준이 높은 집단($M=3.39$, $SD=0.79$)이 만족도가 낮은 집단($M=2.78$, $SD=1.19$)보다 사회적 적응의 평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조리 실습 시설 만족 수준과 사전 교육 경험 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Table 8> The difference in social adaptation according to educational experience and satisfaction levels

Cluster	Educational experience	M±SD	N
High satisfaction	No	3.28±0.82	60
	Yes	3.48±0.76	70
	Total	3.39±0.79	130
Low satisfaction	No	3.15±0.33	17
	Yes	2.64±1.37	43
	Total	2.78±1.19	60
Total	No	3.25±0.74	77
	Yes	3.16±1.11	113
	Total	3.20±0.97	190

<Table 9> The results of two-way ANOVA

Source	SS	df	MS	F
Satisfaction(A)	8.371	1	8.371	9.738**
Experience(B)	0.866	1	0.866	1.008
A×B	4.568	1	4.568	5.315*
Error	159.878	186	0.860	
Sum	2,122.560	190		

$R^2=0.109$, * $p<0.05$, ** $p<0.001$.

9)와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F=5.315, p=0.022$). 즉, 조리 실습 시설 만족 수준은 사전 교육 경험 유무에 따라 사회적 적응에 차이를 보이며, 조리 실습 시설 만족 수준이 높은 그룹의 경우에는 사전 교육 경험이 있는 집단 ($M=3.48, SD=0.76$)이 사전 교육 경험이 없는 집단 ($M=3.28, SD=0.82$)에 비해 사회적 적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리 실습 시설 만족 수준이 낮은 그룹의 경우에는 사전 교육 경험이 있는 집단 ($M=2.78, SD=1.37$)이 사전 교육 경험이 없는 집단 ($M=3.15, SD=0.33$)보다 사회적 적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조리 실습 시설의 만족 수준이 낮은 조리 전공 대학생들의 대인관계나 친목 활동 등의 적응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조리 실습 시설의 만족도 향상 방안 및 조리 전공 대학생의 다양성과 개별성을 존중하고 그것을 기본으로 효과적인 학습이 이루어짐으로써 조리 전공 대학생의 대인관계나 여러 친목 활동의 적응도를 향상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3) 정서적 적응

조리 실습 시설 만족 수준과 사전 교육 경험에 따른 정서적 적응의 차이를 측정된 결과는 <Table 10>과 같다. 또한 이에 대한 통계적 검증을 위해 실시한 이원배치 분산분석의 결과는 <Table 11>에 제시하였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 사전 교육 경험에 따른 정서적 적응에 대한 주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F=12.232, p=0.001$). 즉, 사전 교육 경험이 없는 집단 ($M=3.33, SD=1.13$)이 사전 교육 경험이 있는 집단 ($M=2.89, SD=1.28$)보다 정서적 적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리 실습 시설의 만족 수준에 따른 정서적 적응의 주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F=6.543, p=0.011$). 즉, 조리 실습 시설 만족 수준이 높은 집단 ($M=3.32, SD=1.13$)이 만족 수준이 낮은 집단 ($M=2.52, SD=1.30$)보다 정서적 적응의 평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조리 실습 시설 만족 수준과 사전 교육 경험 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본 결과, <Table 11>과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F=16.080, p=0.000$). 즉, 조리 실습 시설 만족 수준은 사전 교육 경험 유무에 따라 정서적 적응에 평균의 차이를 보이며, 조리 실습 시설 만족 수준이 높은 그룹의 경우에는 사전 교육 경험이 있는 집단 ($M=3.36, SD=1.10$)이 사전 교육 경험이 없는 집단 ($M=3.28, SD=1.16$)에 비해 정서적 적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리 실습 시설 만족 수준이 낮은 그룹의 경우에는 사전 교육 경험이 있는 집단 ($M=2.12, SD=1.18$)이 사전 교육 경험이 없는 집단 ($M=3.54, SD=1.01$)보다 정서적 적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전 교육 경험이 있고 만족 수준이 낮은 조리 전공 대학생들이 일반적으로 겪는 심리적

<Table 10> The difference in emotional adaptation according to educational experience and satisfaction levels

Cluster	Educational experience	M±SD	N
High satisfaction	No	3.27±1.16	61
	Yes	3.36±1.10	70
	Total	3.32±1.13	131
Low satisfaction	No	3.54±1.01	17
	Yes	2.12±1.18	43
	Total	2.52±1.30	60
Total	No	3.33±1.13	78
	Yes	2.89±1.28	113
	Total	3.07±1.24	191

<Table 11> The results of two-way ANOVA

Source	SS	df	MS	F
Satisfaction(A)	8.361	1	8.361	6.543*
Experience(B)	15.631	1	15.631	12.232**
A×B	20.549	1	20.549	16.080**
Error	238.961	187	1.278	
Sum	2,086.840	191		

$R^2=0.177, *p<0.05, **p<0.001$.

스트레스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전공자의 심리적 스트레스를 낮추기 위한 만족도 향상 방안 및 조리 전공 대학생의 다양성과 개별성을 존중하고, 그것을 기본으로 효과적인 학습이 이루어짐으로써 조리 전공 대학생의 심리적 스트레스 정도를 낮추어야 할 것이다.

4) 신체적 적응

조리 실습 시설 만족 수준과 사전 교육 경험에 따른 신체적 적응의 차이를 측정된 결과는 <Table 12>와 같다. 또한 이에 대한 통계적 검증을 위해 실시한 이원배치 분산분석의 결과는 <Table 13>에 제시하였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 사전 교육 경험에 따른 신체적 적응에 대한 주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8.100, p=0.005$). 즉, 사전 교육 경험이 없는 집단($M=3.58, SD=0.79$)이 사전 교육 경험이 있는 집단($M=3.21, SD=1.20$)보다 신체적 적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리 실습 시설의 만족 수준에 따른 신체적 적응의 주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11.061, p=0.001$). 즉, 조리 실습 시설 만족 수준이 높은 집단($M=3.60, SD=0.86$)이 만족도가 낮은 집단($M=2.85, SD=1.39$)보다 신체적 적응의 평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조리 실습 시설 만족 수준과 사전 교육 경험 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본 결과, <Table 13>과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7.889, p=0.006$). 즉, 조리 실습 시설 만족 수준은 사전 교육 경험 유무에 따라 신체적 적응에 평균의 차이를 보이며, 조리 실습 시설 만족 수준이 높은 그룹의 경우에는 사전 교육 경험이 없는 집단($M=3.60, SD=0.85$)이 사전 교육 경험이 있는 집단($M=3.59, SD=0.87$)에 비해 신체적 적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리 실습 시설 만족 수준이 낮은 그룹의 경우에는 사전 교육 경험이 있는 집단($M=2.58, SD=1.39$)이 사전 교육 경험이 없는 집단($M=3.52, SD=0.52$)보다 신체적 적응이 낮은

<Table 12> The difference in physical adaptation according to educational experience and satisfaction levels

Cluster	Educational experience	M±SD	N
High satisfaction	No	3.60±0.85	61
	Yes	3.60±0.87	69
	Total	3.60±0.86	130
Low satisfaction	No	3.52±0.52	17
	Yes	2.58±1.39	43
	Total	2.85±1.27	60
Total	No	3.58±0.79	78
	Yes	3.21±1.20	112
	Total	3.36±1.07	190

<Table 13> The results of two-way ANOVA

Source	SS	df	MS	F
Satisfaction(A)	10.737	1	10.737	11.061**
Experience(B)	7.862	1	7.862	8.100*
A×B	7.658	1	7.658	7.889*
Error	180.549	186	0.971	
Sum	2,362.240	190		

$R^2=0.158, *p<0.01, **p<0.001$.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전 교육 경험이 있고 만족 수준이 낮은 조리 전공 대학생들이 일반적으로 겪는 신체화 장애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전공자의 만족도 향상 방안 및 조리 전공 대학생의 다양성과 개별성을 존중하고, 그것을 기본으로 효과적인 학습이 이루어짐으로써 조리 전공 대학생의 신체화 장애 정도를 낮추어야 할 것이다.

5) 학문적 적응

조리 실습 시설 만족 수준과 사전 교육 경험에 따른 학문적 적응의 차이를 측정된 결과는 <Table 14>와 같다. 또한 이에 대한 통계적 검증을 위해 실시한 이원배치 분산분석의 결과는 <Table 15>에 제시하였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 사전 교육 경험에 따른 학

〈Table 14〉 The difference in academic adaptation according to educational experience and satisfaction levels

Cluster	Educational experience	M±SD	N
High satisfaction	No	3.25±0.94	61
	Yes	3.62±0.77	70
	Total	3.45±0.87	131
Low satisfaction	No	2.86±0.75	17
	Yes	3.27±0.90	43
	Total	3.15±0.88	60
Total	No	3.16±0.91	78
	Yes	3.49±0.84	113
	Total	3.36±0.88	191

〈Table 15〉 Results of two-way ANOVA

Source	SS	df	MS	F
Satisfaction(A)	4.859	1	4.859	6.624*
Experience(B)	5.505	1	5.505	7.506**
A×B	1.025E-02	1	1.025E-02	0.014
Error	137.167	187	0.734	
Sum	2,297.280	191		

$R^2=0.070$, * $p<0.05$, ** $p<0.01$.

문적 적응에 대한 주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7.506$, $p=0.007$). 즉, 사전 교육 경험이 있는 집단($M=3.49$, $SD=0.84$)이 사전 교육 경험이 없는 집단($M=3.16$, $SD=0.91$)보다 학문적 적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리 실습 시설의 만족 수준에 따른 학문적 적응의 주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6.624$, $p=0.011$). 즉, 조리 실습 시설 만족 수준이 높은 집단($M=3.45$, $SD=0.87$)이 만족도가 낮은 집단($M=3.15$, $SD=0.88$)보다 학문적 적응의 평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조리 실습 시설 만족 수준과 사전 교육 경험 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본 결과, 〈Table 15〉와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F=0.014$, $p=0.906$).

즉, 다른 요인과는 반대로 사전 교육 경험이 있

는 조리 전공 대학생들이 대학 내 학업과 관련된 시험 및 수업 등의 적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리 전공 대학생의 다양성과 개별성을 존중하고 그것을 기본으로 효과적인 학습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IV. 결과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조리학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생들의 조리 실습환경과 대학 생활 적응의 관계를 살피고자 하였다. 또한 학습자의 다양성·개별성 측면에서 전공자의 입학 전 교육 경험과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에 대한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인구통계학적 특성 중에 성별, 학년, 출신 고등학교 종류에 따라 대학 생활 적응에 의미 있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러한 결과는 전공이 다른 일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대학 생활 적응 관련 선행 연구(한덕용 등 1991; Kim SK 2003; Kang MS 2004) 등의 결과와 일치한다. 특히 본 연구의 표본 집단인 조리전공자는 정서적 적응을 제외하고 여학생들에 비해 남학생들의 대학 생활 적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년에 따라 고학년으로 갈수록 저학년에 비해 대학 생활 적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실업계 고등학교보다 인문계 고등학교 졸업자의 대학 생활 적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대학 생활 초기에 개인별 특성에 따른 대학 생활의 적응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대학에 입학하였다고 하여도 대학 교육 환경에 대한 불만족에 따른 자퇴 및 타 대학으로의 편입에 의한 중도 탈락률을 낮출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대학 입학 인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지방 대학의 경우,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써 중도 탈락률의 최소화 필요할 것이라 사료된다.

둘째, 사전 교육 경험에 따른 대학 생활 적응도의 주 효과에 대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입학

전 사전 교육 경험이 있는 집단은 조리 교육에 대한 학문적 적응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에 대학의 교육 환경의 괴리에 따른 애착 및 정서적·신체적 적응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교육 대상자의 개별화·다양화라는 추세에 부응하여 조리전공자의 개인별 특성, 특히 사전 교육 경험에 따른 학습기능을 지원하고 촉진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는 지방대학의 대학 입학 정원의 감소 등에 따른 사전 교육 경험이 있는 예비 대학 신입생을 유치할 위한 하나의 방편이 아닌 대학 단계에서의 심화학습 등을 통한 대학 생활 적응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개선방안의 모색할 필요가 있다.

셋째, 조리 실습 시설의 만족 수준에 따른 대학 생활 적응도의 주 효과에 대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조리 실습 시설 만족 수준이 높은 집단의 대학 애착 정도, 사회적 적응, 정서적 적응, 신체적 적응, 학문적 적응이 조리 실습 시설 만족 수준이 낮은 집단보다 평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조리 교육 활동에서 조리 교육 시설이 대학 생활 적응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현재의 시설 공간 구성 방식이 과연 교육 활동 수행을 촉진시키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학교별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즉, 능률적이며 효율적인 교수-학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본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이 교육 시설 환경이기 때문에 미래 지향적 교수-학습이 원만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충분히 다할 수 있는 새로운 조리 교육 환경이 계획되어야 한다.

넷째, 사전 교육 경험과 조리 실습 시설의 만족 수준 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학문적 적응을 제외한 모든 요인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평균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 생활 적응도가 조리 실습 시설 만족 수준과 사전 교육 경험 유무에 따라 평균의 차이를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즉, 조리 실습 시설 만족도가 높은 집단의 경우, 사전 교육 경험이

없는 집단의 대학 애착 정도와 신체적 적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전 교육 경험이 있는 집단의 정서적 적응 및 사회적 적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리 실습 시설 만족도가 낮은 집단의 경우, 사전 교육 경험이 없는 집단의 대학 애착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전 교육 경험이 있는 집단의 사회적 적응, 정서적 적응, 신체적 적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는 연구의 목적을 규명하고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지역적으로 전국이 아닌 충청도에 위치한 대학으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표본의 대표성에 한계가 있으며, 이에 따른 연구 결과의 일반화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보다 광범위한 범위를 설정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피교육자 개인의 성향을 고려하여 학업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더 많은 요인과의 인과관계에 대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글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조리전공자의 조리 실습 시설에 대한 만족도와 입학 전 교육 경험에 따른 대학 생활 적응의 관계를 조사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충청권에 위치한 대학교 3곳의 조리전공자를 대상으로 총 200명을 표본으로 수집하였으며, 이 중 191부를 분석하였다. 이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통계학적 특성 중 남학생과 고학년 전공자,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자의 대학 생활 적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입학 전 교육 경험이 없는 집단이 교육 경험이 있는 집단에 비해 대학 생활 적응도가 부분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조리 실습 시설의 만족 수준이 높은 집단이 만족 수준이 낮은 집단보다 대학 생활 적응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상호작용 효과의 분석결과는 조리 실습 시설 만족도가 높은 집단의 경우 사전 교육 경험이 없는 집단의 대학 애착

정도와 신체적 적응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전 교육 경험이 있는 집단의 경우 정서적 적응 및 사회적 적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리 실습 시설 만족도가 낮은 집단의 경우, 사전 교육 경험이 없는 집단의 대학 애착 정도만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전 교육 경험이 있는 집단의 사회적 적응, 정서적 적응, 신체적 적응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미래 지향적 교수-학습이 원만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전공자의 만족도가 높고 그 기능을 충분히 다할 수 있는 새로운 조리 교육 환경이 계획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성호 (2007). 관광과 조리계열학생들의 교육기초능력 교육향상에 관한 연구: 고등학교와 전문대학의 연계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안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 경기.
- 서강대학교 학생생활상담연구소 (2002). 2001학년도 재학생 실태조사연구. *인간이해* 23:143-169.
- 손유진 (2003). 대학생의 동아리 및 여가참여 유무가 대학 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6-28, 서울.
- 이영애·이연승·정진·조화연·박현주·이현숙·임원신·유준호 (2001). 반편견 교육을 위한 유아 교사 교육의 새로운 접근. *창지사*, 1-2, 서울.
- 이윤정 (2000). 지방출신 서울 유학생의 대학 생활 적응과 진로계획.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2, 서울.
- 조동환 (2006). 공업계와 일반계고등학교 졸업생의 전문대학 생활 적응 실태.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6-17, 서울.
- 한덕웅·전경구·이창호 (1991). 한국대학의 생활환경 변화와 대학 생활 적응.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59-266.
- Baker RW · Siryk B (1984). Measuring adjustment to college. *J Counseling Psychology* 31(2): 179-189.
- Betterncourt BA · Charlton K · Eubanks J · Kemahan C (1999). Development of collective self-esteem among students: Predicting adjustment to college. *Basic & App Social Psychology* 2(13):213-222.
- Jhoo EH (2001). Preliminary survey of variables related to students' adaptation to college life and their career. *Civilization J* 2(2):169-194.
- Kang MS (2004). The relationship between dance majoring students dance exercising environment and college life adjustment. *Korean J Physical Education* 43(6):887-896.
- Kim KY · Kang KS (2006). Instructional media exploitation and application for efficient culinary practice. *J Korean Home Economics Assoc* 44(7):73-83.
- Kim KY · Kim YB (2001). A study the logic relation subject actual training thread education environment the research the satisfaction to sleep regarding an evaluation. *J Kyonggi Tourism Res* 5:20-40.
- Kim NY · Ryu HS (2007). Difficulties of freshmen in the course of adaptation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in three year college.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 & Review* 11(4):363-387.
- Kim SK (2003). Life stress in freshman and adjustment to college. *Korean J Youth Studies* 10(2):215-237.
- Kim TH · Kim WM (2005). A study on the learning model for efficient culinary practice. *Korean J Culinary Res* 11(1):1-17.
- Kwon DB · Oh YJ · Park HM · Son JJ · Song SH (2002). An exploring study on determining

- factors for college student's degree of educational satisfaction. *J Educational Res* 40(3): 181-202.
18. Lee DU · Lee HS · Lee SB (2008). A research of the satisfaction in the work and the cookroom's work environment and recognition of organization's supports are how affected by the "hotel cookroom's mutual aid-environment" and "layout". *Korean J Hotel Administration* 17(1):89-105.
19. Lee SJ · Yu JH (2008). The mediation effect of self-efficacy between academic and career stress and adjustment to college. *J Educational Psychology* 22(3):589-607.
20. Min KH · Yang TS · Cho EH (2003). A study on the examination of cook's personality change by the kitchen environment-focusing on the 1st class tourism hotel in Seoul. *J Foodservice Management* 6(1):85-107.
21. Na TK · Choo SY (2009). The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of the laboratory facilities for the practical education of culinary arts majors in the continuity of educational experiences: Focusing on the Y university in Chungbuk province. *Korean J Culinary Res* 15(2): 255-267.
22. Oh YS · Kim YH (2006). Perceived hotel kitchen environment on the effective cook's job involvement. *Korean J Culinary Res* 12(1):37-50.
23. Park KT · Baek JO (2008). The effect of the environment of cooking education institutes on study satisfaction and re-registration: Focused on busan area. *Korean J Culinary Res* 14(3): 156-164.
24. Ryan RM · Deci EL (2000). Self-determination theory and the facilitation of intrinsic motivation social development, and well-being. *American Psychologist* 55(1):68-78.
25. Ryu HS · Kim NY (2008). A study about characteristics of freshmen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department in three years college and the degree of satisfaction in college life.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 & Review* 12(1):359-384.
26. Song JW · Lee HJ · Lee DK (2007). A qualitative study on freshmen perceptions of course adaptation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in two year colleges and three year colleges; focusing on characteristics of culture in departments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J Korea Open Assoc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12(2):375-401.

2009년 12월 17일 접수
 2010년 3월 1일 1차 논문수정
 2010년 3월 8일 2차 논문수정
 2010년 3월 9일 게재확정